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

도시철도공사 종합정보센타 건축 사업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종합정보센타 건축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이 구축할 종합정보센타는 대형화면을 통한 무인홍보 및 뉴스제공 시스템,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 유실물 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종합정보센타는 지하철 5호선이 완전 개통되는 내년 1월까지 개발 완료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행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사업권을 놓고 무역정보통신을 비롯해 현대전자, 한국 PC통신 등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다.

대우정보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대우정보시스템이 냉난방, 열관리, 환기, 전력 등 관련 공조설비에 설치된 측정 제어기기를 통해 원격리 중앙컴퓨터에서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CS)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을 공장이나 건물내의 모든 공조설비를 대상으로 에너지 수급량, 실내온도, 에너지 압력, 에너지 흐름, 전력상태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역별, 설비별, 시간별로 에너지 사용량과 사용비용을 산정해주기 때문에 손쉽게 에너지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현재 이 제품을 대우자동차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그룹 내의 공장과 대우빌딩 등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쌍용정보통신

미 트랜드사와 네트워크 보안 분야 협력

쌍용정보통신이 네트워크 보안

분야 전문업체인 미 트랜드사의 제품을 국내 공급하기로 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이를 위해 미 트랜드사와 국내 지사인 트랜드 코리아와 최근 제품 및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쌍용정보통신은 원거리 및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한 기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트랜드사의 네트워크 보안제품인 '인터스캔 바이러스윌'을 국내공급하기로 했다.

'인터스캔 바이러스윌'은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내부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보호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파일 송수신(FTP)과 전자메일 등 통신을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쌍용이 이번에 협력 계약을 체결한 트랜드사는 PC시린, 인텔 렌데스크 등 바이러스 프로그램 개발, 공급하고 있는 컴퓨터 보안 분야 전문업체이다.

부산대 멀티미디어 교육관 기증

쌍용정보통신은 부산대에 현직 교사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을 교습 및 실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관을 무상으로 설치, 기증하기로 했다.

쌍용정보통신이 1억6천만원을 투입, 부산대 본관 3층에 설치할 멀티미디어 교육관은 CD롬 타이틀 제작과 활용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PC 42대와 관련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버, 비디오 카메라, TV, 오디오 등 각종 AV장비로 구성된다.

부산대는 이 시설을 활용해 관내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컴퓨터 기초 지식과 인터넷 활용기법, 멀티미디어 제작 및 활용 등의 PC교육을 실시하고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와 쌍용정보통신 등 전문가들이 참여, 정보기술등 분야의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대는 이번 교육과 활용을 계기로 교육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인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아정보시스템

통합석유정보망 개발 착수

기아정보시스템은 국내 석유수급 안정과 국가에너지의 위기 관리 능력배양을 위해 통상산업부와 석유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석유정보망 개발에 착수했다.

오는 98년까지 추진될 석유정보망 사업은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석유관련 정보시스템, 석유유통 정보시스템, 석유위기 대응시스템 등으로 나누어 구축되며 초고속네트워크 기술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2백 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석유관련 정보의 적시 수집 및 공유, 업무표준화 유도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향후 산업정보망 및

국가기간 전산망과도 접속, IP역할을 수행한다.

농심데이터시스템

한국파렛트폴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농심데이터시스템이 물류운반기기 전문업체인 한국파렛트폴의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한국파렛트폴의 전산화 프로젝트는 크게 2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데 예정고객 관리, 수주 예약 관리, 렌탈 이용관리, 수송차량 분석관리 등의 파렛트폴 시스템과 일반회계, 자금, 세무관리, 결산관리시스템 등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농심은 발주, 매입 및 매출, 회수, 청구, 재고 등 파렛트 흐름을 시스템화하고 한국파렛트폴 서울 본사를 비롯 부산, 대구, 대전, 원주 등 각 지역 사업장에서 필요한 각종 분석 정보를 종합 네트워크망을 통해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심데이터시스템은 올 상반기 종합의류업체인 대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한데 이어 최근에 블루힐 백화점의 할인매장관리시스템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연금매장 관리시스템을 수주하는 등 유통 SI부문이 활기를 띄고 있다.

LG정보통신

4.2km 무중계 HDSL 첫 개발
최장 4.2까지 중계기 없이 데이

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속 디지털 데이터전송장치(HDSL)가 국내 처음 개발됐다.

LG정보통신은 무반송 위상변조(CAP) 방식을 채택한 4.2km 무중계 HDSL(모델명 LGHD-1500S) 장비를 개발, 형식 승인을 획득했다고 지난 11월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HDSL장비의 전송 한계 거리인 2.7km를 4.2km로 확장시켜 원거리 지역에도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HDSL은 기존 가입자 전화선로를 이용해 별도의 중계장치없이 T1(1.544Mbps) 또는 E1(2.048Mbps)급의 고속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로 주문형 비디오의 일종인 전화비디오(VDT) 서비스 등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이 제품은 또한 일반적인 HDSL이 전화국에 설치되는 COT장치와 가입자측 장비인 RT장치로 고정 설치되는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장비 사용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그래픽 사용자 운영체계(GUI)형태의 관리시스템을 적용, 운용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97년 7월 전자도서관 개관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도서관이 보유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전자도

관이 내년 7월 문을 연다.

정보통신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연구원(KIST)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 과학기술원(KAIST) 과학도서관, 학술진흥재단 등이 보유한 정보를 디지털 DB화하고 이를 고속망으로 연결하는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지난 10월 31일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에는 SW개발 및 자료입력에 5억원, 서버, 자료저장장치 등 장비구입에 7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자도서관이 구축될 경우 그동안 도서관별로 정보자료 DB를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 행정력 낭비 소지를 예방하고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산원은 오는 12월에 입찰을 통해 시스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SW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 '97년 7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전산원은 4개 도서관에 각각 설치된 DB서버를 고속회선으로 연동시키는 한편 4개 도서관별로 구축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연계시켜 어느 도서관을 찾아 들어가도 모든 도서관의 정보를 한 기관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구성할 계획이다.

전산원은 우선 분야별로 특화된 분야의 자료 구축을 표준화

된 문서양식(SGML)과 공동 검색용 SW(Z39.50)를 개발키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DB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서목록정보 및 귀중본 본문정보, 국회도서관은 입법부 발간정보 본문정보, KAIST 과학도서관은 학위논문 및 교수연구 논문정보, KIST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국가지원연구 보고서 및 과학분야 학회정보, 학술진흥재단은 국외취득박사학위 논문정보등으로 참여기관, 소장 자료중 해당기관에 특화된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고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만을 선정했다.

나래이동통신

은행예금식 요금선납제 도입

나래이동통신이 지난 11월 1일부터 이용요금 선납시 적용하는 할인율을 금리 수준인 13%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은행예금식 '프리미엄 선납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도는 3, 6, 12개월에 따라 2%, 3, 5%, 6%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던 요금할인의 개념을 이자를 덧붙여 서비스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고 개월수에 상관없이 은행금리인 13%를 적용한다.

또 기존의 선납제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개월 수를 정해 받던 것과는 달리 3개월 이상의 요금이면 금액에 제한없이 얼마든지 받도록 개선했다.

대우통신

No.7 신호감시 장치 국산화

전전자교환기 시스템의 공통신호방식(No.7) 접속상태를 모니터링하는 No.7 신호감시장비가 국산화됐다.

대우통신은 전전자 교환기 시스템의 No.7 신호 접속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신호감시장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1년간 약 5억원의 개발비를 들인 이 제품을 전전자 교환기 내의 No.7 신호메시지 경로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경우 거쳐야 하는 복잡한 루프백 시험절차를 자동화시킨 장비다.

대우통신이 개발한 장비는 모뎀 정도의 크기(15×24×5cm)로 휴대가 자유롭고 시스템의 단말단자, 타임스위치 단자, 트렁크 단자에서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No.7 신호 링크를 구축하거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을 쉽게 찾아내고 빠른 시간에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가격이 대당 8천만원에 이르는 외산 프로토콜 분석기에 비해 엄청나게 싼 3백만원대로 생산이 가능해 막대한 외화절감은 물론 해외 수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